



가곡 '얼굴' 탄생 50년 기념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 신귀복 작곡가 초청 행사

“동료 생물교사가 쓴 가사에 5분만에 물 흐르듯 작곡”

‘동그라미 그려라/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아 안 그 때 꿈을/ 풀이에 연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동그랗게 땀물다 가는 얼굴.’

아마도 지면에서 이 글을 읽는 많은 이들이 노래를 흥얼거리지 않을까 싶다. 애초 띠 멜로디와 소박하지만 울림 있는 가사가 어우러진 가곡 ‘얼굴’이 올해 탄생 50년을 맞았다.

매달 한차례 함께 모여 한국 가곡을 부르는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숙·이하 가곡 부르기회) 역시 지금까지 85회 행사를 진행하며 이 노래를 여러 차례 불러왔다. 가곡 부르기회가 오는 15일(오후 7시30분 광주시 동구 임동 강숙자오페라라인 연주홀) 작곡가 신귀복(80·사) 한국서정가곡작곡가협회 회장) 선생을 초청, 86회 행사 ‘보고 싶은 얼굴’을 개최한다.

경기도 안성 출신으로 경희대 음대, 대학원을 졸업한 신 작곡가는 동요, 가곡 등 700여곡을 작곡했다. 대표작 ‘얼굴’은 1966년 만들어졌다. 당시 중학교 음악교사로 근무하던 신 작곡가는 동료 교사가 쓴 시에 멜로디를 붙여 곡을 만들었다.

“생물교사 심봉석 선생이 시를 잘 썼어요. ‘얼굴’은 오분 만에 물 흐르듯 써진 곡입니다. ‘제목은 얼굴이다. 애인의 얼굴을 생각하고 써라’ 이야기한 후 저는 멜로디를 그 친구의 시를 쓰는 데 금방 곡이 완성됐죠. 얼마 후 KBS 라디오에서 방송됐고, 세달 동안 약보를 보내 달라는 편지가 700통 가까이 받았죠. 담당 PD가 가사도 좋고 노래 부르기에 음역도 적당해 인기가 많을 것 같다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생물교사가 대학 동문이었던 여자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곡 덕에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웃음)”

‘얼굴’은 여러 버전으로 불려졌다. 클래식에서는 소프라노 허순자씨가 처음 불렀고 세미 클래식 분위기로는 예



15일 강숙자오페라라인홀 ... 신 작곡가 피아노 맞춰 노래도 50년 만에 후속곡 ‘보고 싶은 얼굴’ 발표 ... 공병우씨 등 출연

그린 악단 테너 석우장이 노래했다. 대중가수 윤연선이 기타를 치며 부른 버전은 특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후 테너 신동호, 가수 임재범 등 많은 이들이 부르며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다. 신 작곡가는 올해 ‘얼굴’의 후편 격인 ‘보고 싶은 얼굴’을 만들었다. “언젠가는 ‘얼굴’ 후속 편을 만들고 싶었죠. 4개월 전에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머리로 안 돌아가고, 판단이 흐려졌었는데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고 난 다음 멜로디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환음도 고치지 않고 주르르 멜로디가 나왔어요. 꼭 처음 ‘얼굴’을 만들었을 때처럼요.”



공병우 교수

“가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내용 이어서 일 겁니다. 내가 그리는 얼굴, 내가 보고 싶은 얼굴, 사랑했던 얼굴들은 누구나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의 얼굴은 다 마음에 담고 있죠. 여고생들도, 나이트 어머니도, 무뚝뚝한 남자도 모두들 그 얼굴을 그려봤을 거예요. 내 마음이 자연스레 가 닿는 누군가의 얼굴을요. 오랜 세월 노래가 살아 숨쉬는 게 참 고맙죠.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모임에서 부르시고는 합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불러요. 얼마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러시아 성악가가 부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신 작곡가는 점차 사라져 가는 한국 가곡의 존재에 대해 아쉬움도 표현했다.

“아름다운 시와 멜로디가 어우러진 한국 가곡은 우리 정서에 큰 힘을 미치는 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우리 고유 정서와 시가 하나의 노래로 만들어지고 그 노래를 부름으로써 마음이 안정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참 좋아요.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청소년들에게는 진취적 기상을 심어줍니다. 가곡을 부르는 건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신 작곡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가곡 사랑을 전하고 있는 광주전남우리가곡 부르기회에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86회 행사를 치러내는 게 대단합니다. 광주 가곡 모임은 초창기에 생겼고 지금은 전국에서 40여개가 움직이고 있어요. 가장 모범적인 곳이 광주입니다.”

광주 행사에서는 ‘내 마음의 꿈’, ‘봄의 노래’, ‘나 하늘로 돌아갈 때’, ‘하늘보다 높은 사랑’ 등 신씨가 작곡한 10여곡을 정진희(광주남초 3) 학생과 황선제, 심옥호, 장흥식, 고재경, 고광덕, 최해훈씨 등 회원들이 부른다.

또 바리톤 공병우(전남대 교수)씨가 ‘달밤’과 ‘해국’을 부르며 심봉석·오두영·이강국·김치경·박원자씨 등 시인들이도 참여한다. 행사 마지막에는 ‘얼굴’과 ‘보고 싶은 얼굴’을 신 작곡가 피아노 반주에 맞춰 함께 부르는 시간도 마련한다.

티켓 가격 1만원을 내면 간단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cafe.daum.net/gjkrsong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학예술작품으로 읽는 오월의 역사’

광주전남작가회의 강좌



조진태 시인

이창동 감독

80년 광주 오월은 인간 존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상기시켰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수많은 예술 작품에 광주의 오월이 형상화되고 반추되는 것은 5·18이 지닌 가치의 보편성과 역사성 때문일 것이다.

문학예술작품을 매개로 5월을 기억하고 그날의 역사적 의미를 숙고해보는 인문학 강좌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전남작가회의는 6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강당(동구 대인시장 맞은편 한국전산 3층)에서 ‘문학예술작품으로 읽는 오월의 역사’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쓰잘 데 없이 고귀한 것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조진태 시인이 강사로 나서 공동체 감성으로서의 오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이색적인 주제가 말해줄듯 조 시인은 ‘나의 감정’, ‘사회적 감정’, ‘공동체 감정’을 매개로 오월 광주를 다각도로 들여다본다.

20일에는 ‘슬픔의 힘’을 주제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는 슬픔이 광주시민을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경악할 사건이 계기가 돼 개인적 감정이 사회적 감정으로 전이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내달 4일에는 ‘사랑’을 테마로 절대적인 가치로서의 사랑의 감정을 살펴본다. ‘불가사의한 것들의 배경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11일과 25일에는 각각 ‘공감’과 ‘애국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전자에서는 함께 나누는 고통으로서의 ‘공감’에 초점을 두고 후자에서는 진정한 애국은 무엇이며 국가란 누구의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6월에는 ‘존엄’과 ‘야만’ 등 서로 상반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먼저 1일에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과 계급군을 소재로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야만의 측면을 다루고, 8일에는 항구적인 윤리로서의 인간의 존엄을 환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인문학 강의와 별도로 ‘영화와 오월’이라는 주제로 한 시네마 토크도 마련돼 있다.(장소는 추후 통보)

오는 23일(오후 2시)에는 영화 ‘26년’을 제작한 조근환 감독과 영화 감상 후 대화의 시간이 예정돼 있다. 30일(오후 2시)에는 ‘박하사탕’의 이창동 감독이 관객과의 대화에 나서고, 5월 7일(오후 2시)에는 영화 ‘화려한 휴가’에 출연했던 배우 박철민씨가 5·18과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낼 계획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30명. 문의 062-523-7830.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영화 ‘박하사탕’

그림책으로 아이들과 소통 ... 아빠·시니어 활동가 양성

광산구, ‘그림책 놀이교실’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그림책으로 아이들과 소통할 아빠와 시니어 활동가 양성에 나선다.

광산구는 자녀 양육에 관심 있는 아빠를 대상으로 ‘그림책 놀이교실’과 60~70대 어르신이 참여하는 ‘무릎팍 그림책교실’을 진행한다.

“그림책 놀이교실”은 어린이 발달과 교육에 도움 주는 책을 고르는 방법, 읽어주는 방법, 대화 방법, 책 놀이 기법 등을 소개한다.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6차례 강좌를 진행한다.

“무릎팍 그림책교실”은 그림책놀이 활동을 통해 삶의 지혜와 따뜻한 감성을 이웃에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그림책놀이의 개념, 소통의 기술, 그림책과 정서의 연관 관계 등 12개 주제로 매주 1회 진행되며 오는 26일 행복나루노인복지관에서 개강한다.

접수 마감은 24일까지며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 062-8284-828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coffee shop buildings. Title: 커피숍 상가 4층 건물 매매. Features: 1층 (커피숍 입점), 2층~3층 (고급 룸 8개), 4층 (주택)을 주택. Price: 월수익 → 500만, 매가 → 6억 8천만 (용 1억5천만).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office buildings. Title: 근린상가 오피스텔 매매. Features: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매가 1억 1천만, 매가 3천 5백만. Price: 매가 8천 500만, 매가 1억 5천만.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legal auctions. Title: 법률경매.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auction with details on location, size, and price. Price: 매가 7천 500만, 매가 3천 5백만.